한국 온 세계 스포츠 여성스타들

장대높이뛰기-이신바예바 몸풀기

2006 대구국제육상대회를 하루 앞둔 27일 여자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인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가 대구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스트레칭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힝기스 첫승

27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2006 한솔 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힝기스와 보즈니아키의 경기에서 힝기스가 강력한 서브를 넣고 있다. 힝기스는 캐롤라인 보즈니아키(292위·덴마크)를 2-0(6-3 6-2)으로 완파하고 2회전에 올랐다. /연합뉴스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승엽이 27일 오후 도쿄 진구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 경기에서 1회초 첫 번째 타석에서 1.2루 주자를 불러들이는 2루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팀내 두번째 시즌 100타점 돌파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30)이 100타점 돌파에 이어 102타점을 달성했다.

이승엽은 27일 일본 도쿄 진구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와 원정경기서 첫 타석부터 2루타로 적시타를 때려내며 시즌 100타점을 올렸다.

1회 1사 1,2루서 타석에 들어선 이승엽은 볼카운트 2-2에서 5구째를 받아쳐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이때 좌익수 라미레스와 중견수 아오키가 겹쳐지며 공이 빠져 2루타가 됐다.

2루주자 스즈키와 1루주자 다카하시가 모두 홈을 밟아 타점도 2개나 추가됐다. 시즌 100타점이었다. 요미우리 선수로는 2002년 마쓰이 이후 처음으로 100타점 고지를 밟는 선수가 됐다. 이승엽은 또 3회에도 우전안타를 때려 101타점을 올리고 4회에도 1타점을 추가, 102타점을 기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설기현 연일 '상종가'

■ '액팀스태츠' 선수랭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스나이퍼' 설기현(27·레딩)의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설기현은 26일(한국시간) 저녁 발표된 프리미어리그 공식 통계사이트 액팀 스태츠 선수랭킹에서 지난주보다 13계단 뛰어오른 19위(95점)를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선수랭킹 20위 이내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기현은 지난 24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시즌 6차전 홈 경기에 선발출전해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슈팅과 돌파를 선보이면서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www.skysports.com)로부터 2주 연속 평점 7을 얻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2일 68위였던 설기현의 선수랭킹은 지난 17일 세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데뷔골이 터진 뒤 무려 36계단 상승한 32위(77점)까지 치솟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주영 "AG서 명예회복"

베어벡, 아시안게임축구대표 20명 발표

연거푸 2차례나 '베어벡호'에 승선하지 못했던 박주영(21·서울)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 선발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를 잡았다.

핌 베어벡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27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박주영을 비롯한 17명의 23세 이하 선수들과 이천수(25·울산), 김두현(24·성남), 김동진(24·제니트) 등 3명의 '와일드 카드'를 포함해 아시안게임 대표팀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명단에는 전날 발표된 31명의 '3기 베어벡호'에 포함됐던 16명의 23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 권집(전북)을 제외한 15명이 뽑혔고,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 김동현(루빈 카잔)과 베어벡호에서 2차례나 빠지는 수모를 겪었던 박주영이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했다.

골키퍼에는 베어벡호의 주전 골키퍼 자리를 넘보는 김영광(전북)과 청소년 대표팀 출신의 정성룡(포항)이 백업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또 수비수에는 베어벡호의 수비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조원희(수원)와 김진규(이와타)가 이름을 올린 가운데 왼쪽 윙백에 김동진(제니트)이 와일드 카드로 수비보강에 나섰다.

또 미드필더에는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백지훈(수원)을 비롯해 이호(제니트), 오범석(포항), 오장은(대구)이 뽑혔고, 경험 많은 김두현(성남)이 와일드 카드로 중원을 이끌게 됐다.

공격수에는 프로 2년차 징크스로 그동안 대표팀에 소집되지 못했던 박주영이 포함된 가운데 최성국(울산), 정조국(서울), 염기훈(전북)이 소집명령을 받았고 러시아로 이적한 김동현(루빈 카잔)이 오랜만에 가세했다.

공격수 와일드 카드는 이천수에게 주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일 배드민턴 교류전 성료

제2회 한·일 배드민턴 교류전이 최근 1천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성료됐다.

한·일 배드민턴 교류전은 지난 1월7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160명이 일본을 방문, 첫 번째 교류전을 가졌고, 이번 대회는 180명의 일본선수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제2회 대회를 갖게 됐다.

이상동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은 "민간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해 한 마음이 돼 보자는 차원에서 대회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셔틀 콕을 통한 양국 동호인들이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